



무정전 전력공급으로 국가 브랜드가치 상승 기여



이 영 익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

서울 G20 정상회의 의미

서울 G20 정상회의가 11월 11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주회의장인 COEX 등 21개 행사장에서 20개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G20 정상회의는 지구촌 200여 개국 중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20개국 정상들의 모임으로서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세계 최고의 회의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외교사적으로나 경제사적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의 밑바탕이 된 KEPCO의 완벽한 전력 확보 추진실적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전력확보 기획단 조직

KEPCO는 G20 정상회의의 개최 장소가 우리나라 서울로 결정된 이후, 사업총괄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G20 정상회의 전력 확보 기획단'을 지난 3월 구성하



여 행사장 공급설비 점검·전력기반시설 방호시스템 구축·전력설비 미관 개선작업을 분야별로 충실하게 준비해 왔다.

특히, 경호안전통제단·소방방재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행사장 사전안전관리팀' 및 '강남권 취약시설물 전담점검반'에 참여, 매일 1회 행사장에 대한 설비점검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하여 철저히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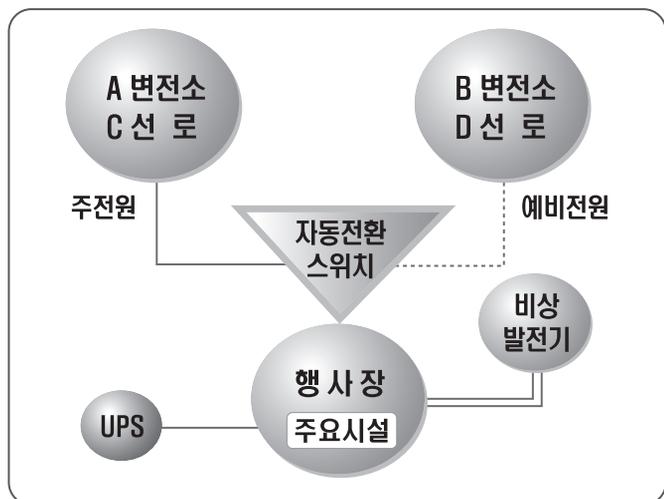
전력공급선로 다중전원 구성으로 완벽한 대비

서울 G20 정상회의의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하여 총 21개 전력 확보 대상(회의장 1개소, VIP 숙소 12개소, 행사장 5개소, 공항 3개소)에 대한 공급선로를 주전원 및 예비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사장 구내에 시설되어 있는 비상발전기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및 Owl Light를 활용한 안정적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였다.

특히, 첨단진단장비(열화상·자외선·광학쌍안경·PD측정기 등)를 활용, 행사장 공급선로를 Smart하게 점검하여 불량설비를 적기 교체하였으며, 파급고장 예방을 위해 행사장 구내설비 점검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해 만전을 다하였다.

뿐만 아니라, 3월과 8월에는 CEO와 지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 공급 변전소 고장에 의한 광역 정전 대비 전력설비 긴급 복구 훈련

을 시행하여 비상복구체제를 점검하였다.





전력설비 179개소에 감시시스템 설치로 보안 강화

전력공급 시설을 아무리 완벽하게 점검하고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전력 기반시설인 변전소나 맨홀 등이 적의 공격에 노출되어 파괴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전력구·변전소·맨홀에 불순 분자 침투 등이 우려되는 179개소에 24시간 감시시스템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테러 활동을 원천 봉쇄하였으며, 10월말에는 경호안전통제단과 협의하여 회의장 및 숙소 주변 2,762개 맨홀에 대한 용접작업과 2,273개 지상기기에 대한 잠금장치 설치를 통해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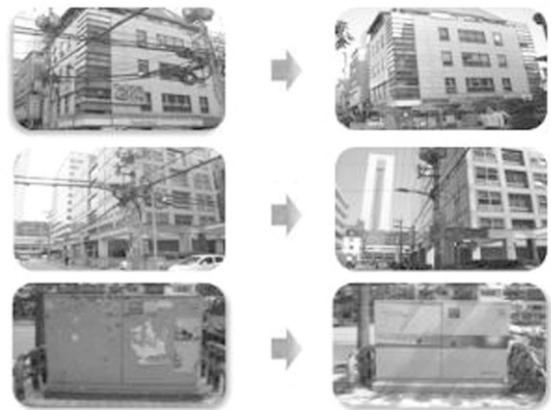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D-2일부터는 주요 변전소에 대하여 군·경 합동 비상근무를 시행하였으며, 무인변전소의 경우 KEPCO 직원을 배치 운영하였다.



도심 전선 정비해 Green 이미지 심어

서울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 서울로 결정된 이후, 행사장 주변 지역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Green KEPCO' 전력설비 이미지를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회의장 주변 지역에 '음식 문화 거리 지중화 사업'을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행하였으며, 7~8월에는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지역에 도심환경을 저해하는 전선 및 통신선을 통신사업자와 합동으로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시작된 지상기기 미관개선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Clean KOREA'의 강렬한 인상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종합상황본부 가동 및 전력공급 특별기동대 발족

지난 10월 13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격 향상 기여를 위해 본사 지하 2층에 종합상황본부를 개설함과 동시에 '전력공급 특별기동대'를 발족하였다.

우선, 5개 반 25명으로 구성된 종합상황본부는 11월 1일부터 24시간 가동·운영하였으며 경호안전통제단과의 Hot-Line개설, 소방방제본부 파견 등 관련 사업소 종합상황실과 긴밀한 협조하여 전력 확보 종합상황



국가브랜드 가치상승 기여 및 Global KEPCO 위상 제고

KEPCO는 과거 2002년 월드컵, 2005년 APEC,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중요행사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한 무결점 전력공급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2010년 남아공 월드컵경기장 전력시설에 대한 사전 진단 Consulting을 요청받아 Global KEPCO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이러한 Know-How를 적극 활용하여,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 국격 향상과 국가 브랜드가치 상승에 기여하였으며, 이번 G20 정상회의를 KEPCO에게 주어진 역사적 기회로 삼아,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KEPCO Way를 실현, Global KEPCO의 위상제고 기반을 굳건히 구축하였다. KEA

을 진두지휘하였다.

특히, '전력공급 특별기동대'는 전국에서 차출된 13명의 진단전문가와 서울·남서울본부 직원 등 총 353명의 기동대원이 첨단 진단 장비를 활용하여 4,283개소의 점검 대상을 한 달 간 평균 10회 이상 24시간 밀착 점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에 대비한 보안설비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무결점 전력공급의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